

남도의 - 겨울

지난겨울의 혹독했던 추위는 다시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겨울에도 붉은 꽃이 피고 지는 곳, 들판에서는 보리와 월동 배추, 과, 마늘, 양파가 여전히 푸르게 자라는 곳, 때로 거센 바닷바람에 옷깃을 여미다가도 바람이 잦아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두꺼운 외투가 거추장스러워지는 곳, 남도로 가보자.

글 한미희 · 사진 전수영 기자

여수 여자만 물 아래 갯벌도 아름답다

물이 아름다운 곳 여수(麗水). 그곳은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바다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물 아래마저 아름답다.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들고 나며 귀중한 생명들을 품은 갯벌이 그 맑간 얼굴을 드러내는 여수의 서쪽 바다, 여자만(汝自灣)이다.



- 1 여자만 갯벌의 백로
- 2 양식장에 꽂아두었던 대나무에 조개껍데기가 붙어 남아있다.
- 3 사곡리 주민이 막 갯 굴을 들어 보여줬다. 4 여자만과 순천만이 만나는 곳에 있는 와온 해변

12월 초의 어느 날 서울에서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찾아오고 있었다. 남쪽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한파주의보를 알리며 퇴근길 따뜻한 옷을 준비하라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부연 안개를 뚫고 달려 전라남도에 닿으니 해가 비치기 시작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에 들어서 차창을 열었다. 땀을 스치는 햇살과 바람이 봄의 것인 양 따사롭고 부드럽다. 순천만과 여수만이 이어지는 곳에 있는 와온 해변에 잠시 멈췄다. 기온을 확인하니 영상 17도. 갑자기 거세게 불기 시작한 바람에 놀랐지만, 그 바람마저도 날카롭지는 않았다. 비린내 하나 나지 않는 신선한 바다 내음을 힘껏, 있는 힘껏 들이마셨다.

갯둑방에서 맛본 짭조름하고 향긋한 자연산 굴

순천만 습지부터 와온 해변이 있는 순천시 해룡면까지 바다는 순천만이라 하고, 여수시 율촌면부터 아래로는 여자만이다. 여자만 한 가운데 있는 섬이 '너 여'(汝) 자의 형상을 닮은 데다, 육지와 멀어 모든 것을 스스로(自) 해결해야 한다는 뜻의 여자도다. 섬이 낮아 파도가 산을 넘는다 하여 '넘자도'라고 하던 것을 한자를 빌려 쓴 것이라고도 한다. 여수반도와 고흥반도로 둘러싸인 여자만의 맑고 깨끗한 바다에서는 꼬막, 굴, 바지락을 비롯한 질 좋은 해산물이 많이 난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오후, 종일 갯벌에 쪼그리고 앉아 굴을 캐는 주민들도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마을과 가까운 갯벌의 끝에는 만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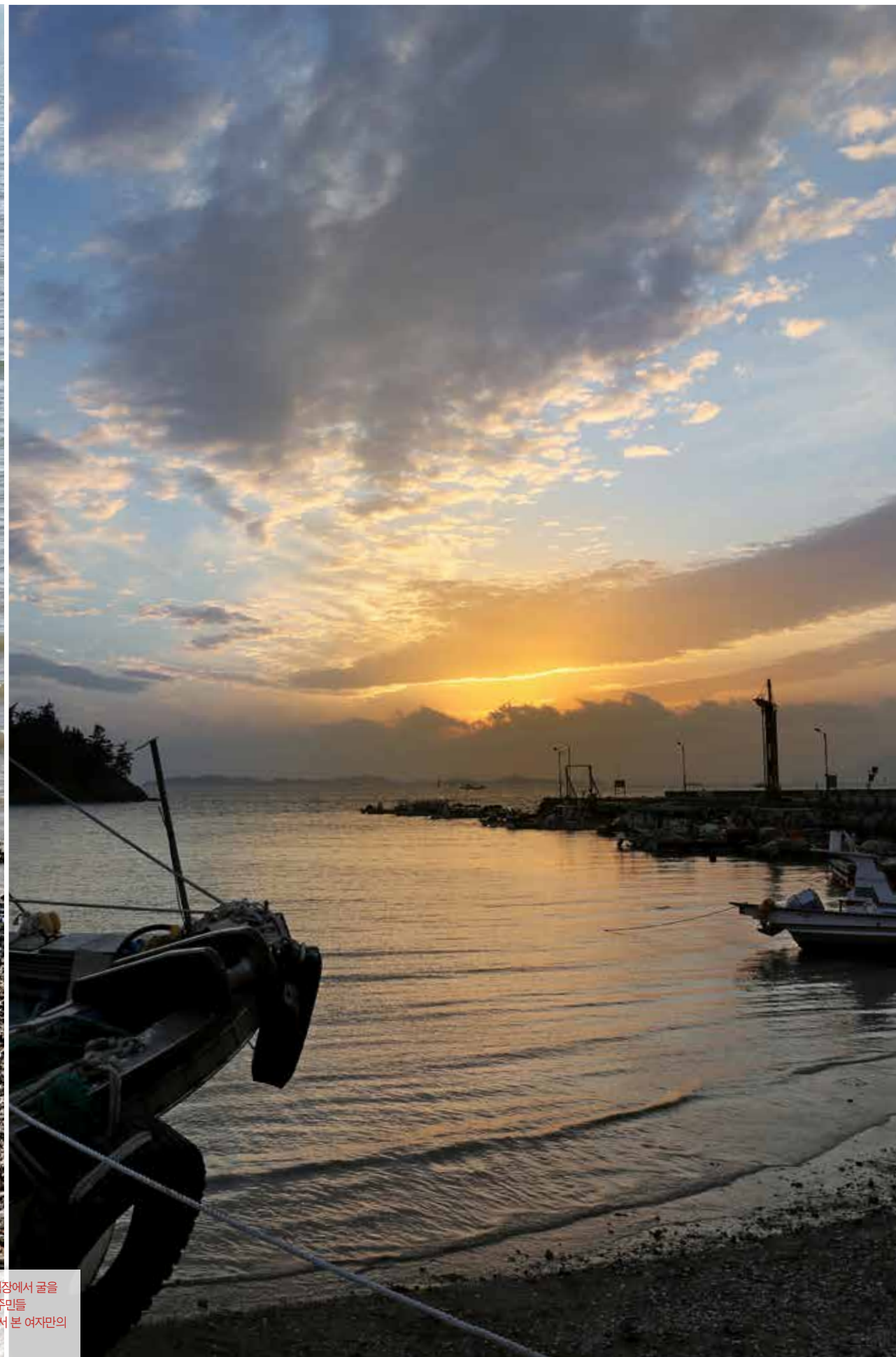
때 들어온 바닷물을 가둬놓는 웅덩이인 갯둑방이 있다. 여기서 막 따 온 굴과 작업 도구를 행귀 개흙을 떨어낸다. 커다란 물통에 갯둑방의 물을 담아가는 주민들이 많기에 이유를 물으니, 김장 배추를 이 바닷물로 절인단다. 사실 처음엔 갯둑방이 뭔지도 모른 채, 갯둑방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이게(갯둑방) 뭐냐고

물자 "갯둑방!" 하시고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난처해하는 객에게 "하나 먹어볼터?"라며 막 행귀낸 자연산 굴 한 점을 내미신다. 냉큼 받아 입에 넣으니 짭조름하고 향긋한 바다가 입안에 가득 퍼졌다. 감격에 겨워하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나도 딸이 넷이여"하며 이번에는 한 움큼을 덜어 내미신다. 입으로는 "아니 이 귀한 걸, 관찰합니다" 하면서도 손바닥은





1 마을 양식장에서 굴을
캐고 있는 주민들
2 사곡리에서 본 여자만의
일몰



이미 자연산 굴을 맞으러 나가고 있었다. 어느새 운동화 밑이 찰박찰박할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 넙죽넙죽 받아먹고 넙죽넙죽 인사를 한 다음 돌아 나오는데, 입안에는 여전히 바다 내음 이 맴돌고 히죽히죽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햇빛에 물든 바다에 취해 바다의 소리를 듣는 곳

해가 지기를 기다리며 사곡리 해안도로 '갯노을길'을 따라 위쪽으로 걸었다.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기에,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를 달리기에 좋지만, 하염없이 걸기에도 그만이다. 도로를 벗어나 갯벌 위로 만들어진 데크 다리를 따라 산책하는 주민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윗마을까지 가닿았다. 파랑기만 하던 하늘에 어느새 붉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해가 한뼘씩 한뼘씩 낮아지면서 햇빛과 구름과 공기가 하늘과 바다 위에 그리는 그림이 시시각각 달라졌다. 사진첩에 모아놓고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없게 비슷비슷한데도, 맨눈으로 보는 풍경은 어느 한순간도 놓치기가 아까웠다. 걷다 멈춰 노을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기를 반복하다가 어느덧 그마저도 관췌다. 바다를 향해 가만히 섰다. 바다가 밀려오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여수의 동쪽 바다가 밤바다 위에 반짝이는 도심의 불빛에 취해 '여수 밤바다'를 흥얼댈 수밖에 없는 곳이라면, 여기 여자만은 햇빛에 물든 바다와 하늘빛에 취해 바다의 소리를 듣는 곳이다.

가사리 갈대밭부터 소羹이 꼬막산까지

여자만의 자전거길은 오동도에서 시작해 시청을 지나 가사리 방조제를 거쳐 사곡리 해안을 따라 꼬막 선별장이 있는 울촌면 봉전리 소羹이 마을까지 이어져 있다. 총 41km가 넘는 코스로, 초·중반에는 도시의 주요 관광지를 거친다. 라이딩족이 아니고, 여자만의 운치만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가사리 생태공원에서 시작하면 된다. 인근 YMCA생태교육관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방조제 안쪽으로 갈대밭이 펼쳐져 있는데 갈대 사이로 데크가 설치돼 있어 산책하기에도, 사진을 남기기에



1
1 가사리 갈대밭의 큰고니
2 북산리 해변의 포토존

좋다. 이곳에서 거울을 나는 철새들도 볼 수 있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큰고니 가족들이 풀이 우거진 곳에서 쉬고 있었다. 다 자란 큰고니는 흰색이지만, 아직 어린 아기 새는 어두운 잿빛이다. 민대기 문화관광해설사는 "순천만 갈대숲이 훨씬 크지만, 그래서 망원경이 있어야 새를 볼 수 있다"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맨눈으로 새를 관찰하기에는 여기가 훨씬 좋다"고 자랑했다. 방조제 위에 올라서면 앞으로는 망망한 여자의 바다가, 뒤로는 갈대숲 넘어 너른 평야가 펼쳐진다. 일제 강점기 쌀 공출을 위해 바다를 막아 만든 논이다.

평일인데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주말이면 라이딩족이 행렬을 이룬다고 한다.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 한겨울도 예외가 아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서 차를 멈춰 세우게 된다. 철 모르고 일찍 피어버린 길가의 동백꽃이 예뻐서, 물이 빠지고

드러난 갯벌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이 눈부셔서, 까만 갯벌 한가운데 우아하게 서 있는 새하얀 백로 때문에, 바다 건너 보이는 고흥 땅의 팔영산 봉우리를 헤아리느라. 이리저리 한눈을 팔며 걷다 보니 어느새 땀이 난다. 이날은 전라북도까지도 한파주의보가 내렸고, 여수도 전날보다 기온이 10도나 떨어졌지만, 여전히 영상 7도. 민 해설사는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별로 없으니 여기 사람들은 영하 3도만 되도 '허벌나게 춥다'고 한다"고 했다.

'꼬막 한 점에 소주 한 잔'

내친김에 사곡리 일대의 갯벌노을마을을 벗어나 순천시와 경계를 맞댄 율촌면 봉전리, 소뎡이 마을까지 달려다. 소뎡이(솔뚜껑의 전남 방언)를 닮은 바위가 있는 이 마을에는 꼬막산도 있다. 바다를 점점 채우고 있는 배들이 꼬막 선박들이다. 바다에서 채취한 꼬막



2

을 선착장으로 옮겨오면 선착장에서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바로 꼬막을 선별하고 세척하는데, 속이 비거나 무게가 미달하는 꼬막이 육지 쪽에 쌓여 산을 이뤘다. '벌교 꼬막'으로 유명한 참꼬막은 제사상에 올리는 귀한 꼬막이다. 갯벌에서 뿔배를 타고 사람이 직접 캐야 해서 생산량이 많지는 않은 데다, 최근 환경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생산량이 더욱 줄어 맛보기 쉽지 않다. 여수에서 배로 캐는 꼬막은 새꼬막이다. 참꼬막은 껍데기의 골이 깊고 그 수도 적다. 새꼬막은 골이 상대적으로 얇고 그 수가 많다. 피꼬막은 참꼬막이나 새꼬막보다 훨씬 크다. 천지가 꼬막인 여기까지 와서 맛도 안 보고 갈수는 없는 일. 제철인 꼬막은 입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데쳐 나온다. 뒷부분 흠에 손가락을 넣고 살짝 비틀면 쉽게 벌어진다. 막 데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꼬막을 아무런 양념 없이 그냥 먹는다. 향긋하고 즐거운 것이 촉촉하고 부드럽다. '꼬막 한 점에 소주 한 잔'이라는 이 동네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고흥 쑥섬·연홍도 반도 끝 작고 아름다운 섬

고흥군은 고흥반도와 주변의 230개 섬으로 이뤄졌다. 고흥의 23개 유인도 중 가장 잘 알려진 섬이라면 한국의 첫 우주센터가 들어선 나로도와 아프고 슬픈 역사의 상징인 소록도일터. 이 두 섬을 지나면 반도의 양쪽 끝에 여행자를 매혹하는 작고 아름다운 섬이 있다.





1 **쑥섬에 핀 동백**
2 **쑥섬 애도마을의 돌담길**

비가 그친 12월의 아침, 마늘과 양파가 자라는 푸른 별판을 달려 고흥반도의 남동쪽으로 향했다. 한겨울 수확을 마친 논에서 다시 푸릇푸릇 새싹이 돌아나는 것도 남도에서는 흔한 풍경이다. 나로1대교를 건너 내 나로도로, 나로2대교를 건너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외 나로도에 들어섰다. 외나로도항에서 바로 코앞에 건너 다보이는 애도, 쑥섬으로 건너갈 참이다. 질 좋은 쑥이 많이 나는 곳이라 '쑥 애'(艾) 자를 쓰지만, '사랑 애'(愛) 자로 잘못 생각하거나, '외도' 등으로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은 쑥섬이라고 부른다.

이국적인 난대림과 바다 위 비밀 정원

쑥섬은 관광객을 실어나르던 배가 지난여름 폐선되면서 새 배를 건조하느라 12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탐방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마을 주민의 배를 빌려 타고 항을 출발한 지 3분 만에 쑥섬에 닿았다. 선착장 바닥 한쪽에 누군가 잡아 늘어놓았을 알록달록한 불가사리들이 먼저 반긴다. 마을 정자 근처에 모여 돌담 안 밭에서 자라는 김장 채소를 살펴보던 마을 주민들도 오랜 만에 찾아온 외지인을 반갑게 맞아줬다. 개와 닭이 없는 이 섬마을의 골목을 누비는 건 고양이들이다. 고양이는 고양이인지만 반갑다고 다가가는 외지인을 뺨하고 외면했다. 조금은 우스꽝스럽지만 귀엽게 봐 주고 싶은 갈매기가 지붕에 올라앉아 있는 건물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카페이자, 탐방로 입구다. 카페 뒷문으로 나가 '혈떡길'이라고 이름 붙인 고개를 짚고 굽게 넘으면 불쑥, 신비로운 난대원시림에 들어서 있다. 해병대 군복 같은 무늬를 가진 육박나무부터 오솔길 위를 가로지르며 거의 누워 자라는 수백 년 된 후박나무, 회귀수 종인 푸조나무를 비롯해 동백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남도에서만 볼 수 있는 늘푸른나무들이 우거져있다. 아침까지 내린 비에 촉촉하게 젖은 숲은 공간 이동이라든 한 듯 이국적이다. 태풍 매미(2003년)와 불라벤(2012년)에 쓰러진 나무들 옆에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팻말이 놓여 있다. 난대림을 빠져나와 야생 무화과인 천선과 군락지, 야생 백합인 참나리 군락지, 소사나무와 돈나무 군락지를 지나 섬 꼭대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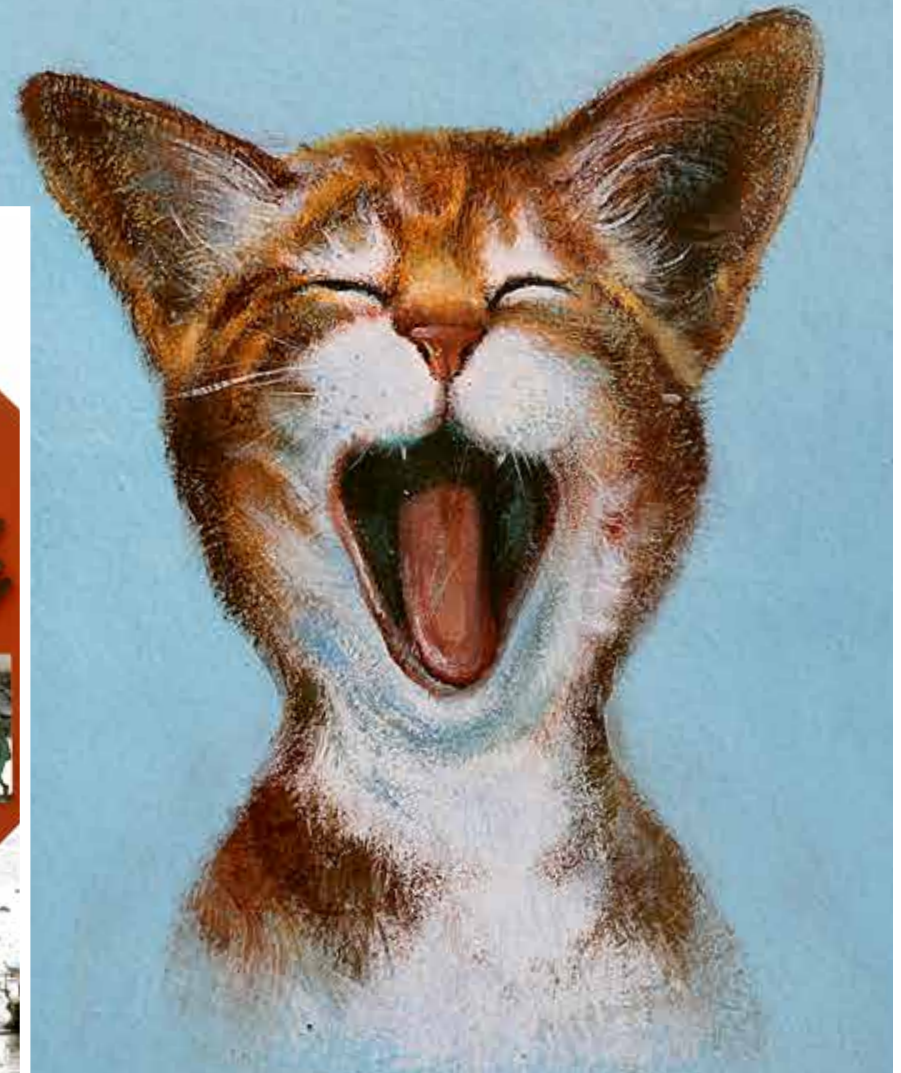
이르면 다시 불쑥, 공간 이동을 한다. 이번에는 잘 가꾼 정원이다. 봄, 여름에 피는 꽃처럼 화려하거나 싱싱하지는 않지만, 이 겨울에도 거센 바닷바람을 맞으며 곳곳이 피어있는 꽃들에 그만 감격하고 말았다. 한여름 절정을 뽐냈을 수국 대신 천일홍, 린타나, 피튜니아, 팬지, 아게라툼 그리고 미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사랑스러운 꽃들이 화색 빛으로 흐린 겨울 하늘 아래를 다채롭게 물들이고 있었다. 허리를 굽히고 기특한 꽃송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훌쩍 흘렀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 남해를 향하니 멀리 소거문도, 손죽도, 초도가 나란히 보인다. 부드러운 바람에 파도 소리만 잔잔히 흐르는데 거문도에 다녀오는 여객선의 엔진 소리가 끼어들었다가 사라졌다.

300살 동백나무길과 돌담길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겨 내려오는 길, 막 심은 어린 동백

나무도 꽃봉오리를 머금었다. 그 아래서는 야생 것이 커다랗게 쑥쑥 자랐는데 유채꽃을 닮은 노란 꽃도 피웠다. 일몰 명소리는 등대로 내려가면 바위와 소나무, 초록빛 바다가 어우러진 절경이 기다린다. 정원에서와는 달리 바람이 거세다. 면적이 0.3km에 불과한 이 작은 섬에서 발길을 옮길 때마다, 눈길을 돌릴 때마다 다른 세상을 마주한다. 대숲을 따라, 멋 들어진 후박나무 아래를 지나, 동그랗고 네모난 쌍우물까지 내려오며 끝인가 싶어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데 다시 시작이다. 200~300년 된 동백나무들이 늘어선 길에서 다시 한번 탄성이 나온다. 2,3월이면 빨간 동백꽃 카펫이 깔릴 길이다. 일찍 핀 꽃도, 더 일찍 피었다 이미 떨어져 버린 꽃도 있다. 동백길을 지나 마을로 나온다. 가슴께까지 올라오는 좁은 돌담길이 진짜 마지막이다. 바람이 거센 섬에서 사람과 바람이 함께 다니는 길이다. 1970년대에 300여명이던 주민은 20명 남짓으로 줄었고, 돌담 안 사람이 떠나고 남은 빈터는 이제 바람만 휘돌아 나간다.





연홍도 마을 골목길과
'해안가의 미술작품들'

목어가고 싶은 작은 섬

500여 가지 수목이 자라고 400여 가지 꽃이 피고 지는 쑥섬은 전라남도의 제1호 민간정원이다. 2017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본상인 누리상을 받았다. 나로도에서 나고 자란 교사 김상현(49)씨와 아내인 약사 고채훈(46)씨 부부가 10년째 가꾸고 있는 곳이다. 김 교사는 어릴 적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대신한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자랐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주변과 공동체에 되돌려주고 싶어했다. 그 마음에 공감해 준 아내와 함께 외가가 있던 쑥섬에서 주민이 떠난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 2000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섬을 가꾸기 시작했다. 석공이었던 김

교사의 부친이 직접 돌을 쌓아 탐방길을 만들었다. 마을 주민들도 틈틈이 탐방길을 다니며 잡목을 치우고, 탐방을 마치고 내려온 관광객에게 직접 만든 쑥차, 해초 장아찌 등을 팔아 재미도 수입도 챙기며 공동체의 자산이 됐다.

지붕 없는 미술관, 연홍도

고흥반도 남서쪽 끝 녹동항에서 소록도를 지나 거금대교를 건너 거금도 신양 선착장에 내리니 바람이 거세다. '지붕 없는 미술관' 연홍도로 가는 길, 처음 미중 나온 배마저 미술관으로 가는 배담게 알록달록하다. 5분 만에 마을 선착장에 도착하면 이곳에서 많이 나는 대형 빨소라와 자전거

를 타고 굴렁쇠를 굴리며 개와 함께 달리는 아이들이 마을 입구 방파제를 장식하고 있다. 주민들의 옛날 사진을 모아놓은 '연홍 사진 박물관'을 지나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골목길이 미술관이다. 기왓장이나 장어통발로 만든 화분, 가리비와 전복, 소라 껍데기로 만든 꽃, 녹슨 석쇠 안에 납작한 돌과 유리 조각을 끼워 넣은 생선구이, 녹슨 부탄가 스통으로 만든 양귀비꽃, 낚시 도구로 만든 낚시하는 사람 등 작가와 주민들이 주변의 버려진 재료들로 만든 작품들이 하나하나 재치있다. 가로등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조형물을 감상하면서 느릿느릿 돌아 나오면 연홍미술관이다. 초록색 칠

이 벗겨지도록 낡은 책 읽는 소녀상과 이순신 장군상은 이곳이 한때 학교였음을 알려준다. 미술관 마당의 윤치 있는 소나무 아래 벤치든, 갤러리 카페의 창가든 자리를 잡고 앉아 앞바다에 펼쳐진 '연홍도의 정원'을 즐겨보자. 완도 군에 속한 금당도의 바위와 절벽이 절경을 이루는데, 정작 금당도 안으로 들어가서는 즐길 수 없는 풍경이다. 발두령길을 걸어 나오면 누런 강황밭 아래로 여전히 소가 쟁기질을 한다는 비탈밭에서 양파가 푸르게 자라고, 3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팽나무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넉넉히 시간을 두고 숲길, 둘레길을 따라 섬 양쪽 끝까지 천천히 걸어도 좋겠다.

진도 윤림산방과 용장성 운치도 쓸쓸함도 낭만도 모두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 진도를 찾은 날은 절기상 '대설'이었다. 대설에 맞춰 진도에 첫눈이 내렸는데 말 그대로 대설이었다.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됐다. 남도 여행에서 마주칠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다. 덕분에 대가의 화실은 더욱 운치 있게, 몽골군에 쫓겨 내려온 삼별초 항쟁의 흔적은 더욱 쓸쓸하게 살아났다.





눈이 내리는 윤림산방

추사와 초의를 그리워한 소치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1808~1893)은 20대 후반 해남 대흥사에 있던 초의선사 밑에서 공재 윤두서의 화첩을 보며 그림을 익히기 시작했다. 30대 초반에야 초의를 통해 추사 김정희를 스승으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서화 공부를 했다. 추사는 중국 대화가 대치(大痴) 황공망과 비교해 '소치'(小痴)라는 아호를 직접 지어주고, "암록강 동쪽에는 소치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극찬했다. 윤림산방(명승 제80호)은 서울에서 귀향한 소치가 말년을 보낸 화실이다. 소치 이후 5대가 200년 동안 이곳을 중심으로 화맥을 이어오고 있다. 매표소를 지나 소나무와 동백나무를 앞에 두고 잠시 멈춰섰다. 그 자리에서 이평기 문화관광해설사의 말을 따라 침철산 아래 터를 잡은 윤림산방과 그 앞 연못과 다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니 소치의 대표작 '윤림각도'(雲林閣圖, 1866)에 담긴 풍경 그대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침철산의 상록수림이 눈발 사이에서 더욱 푸르다. 아침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연기와 안개가 구름숲(雲林)을 이루었다는 이곳은 소치의 손자인 남농 허건(1908~1987)이 1982년 복원했다. '윤림'은 소치가 정신적 스승으로 삼았던 원나라 화가 예찬의 호이기도 하다. 산방 앞의 연못과 뒤편의 생가를 둘러싼 동백나무,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목련, 매화나무, 모과나무, 팽나무, 꽃사과나무, 목서 등 다양한 수목이 수려하다. 연못 한가운데 돌로 쌓은 작은 섬에는 소치가 직접 심었다는 배롱나무(백일홍)가 있고, 물 위에는 수련이 떠 있다. '떠나간 벗을 그리워하다'라는 꽃말을 가진 배롱나무는 추사를, 차로 마시는 수련은 다성(茶聖) 초의를 가리는 의미라고 한다.

물이 되고 눈이 되고 안개가 되는 여백

소치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걸려 있는 그림은 추사의 '세한도'(歲寒圖)다. 문인이 의중을 담아 수묵담채로 그린 산수화에 시를 더한 19세기 남종화의 절정을 이룬 추사의 대표작이다. 귀양 중인 자신에게 중국에서 구한 귀한 책을 가져다준 제자, 역관 이상적에게 자신의 처지와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려준 그림이다. '추워지고 나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也)는 논어의 구절을 인용해 어려운 시절에 변치 않는 제자에게 감사해하며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長毋相忘)는 인장까지 더하니 사제 간의 자별한 마음이 더욱 애절하다. 세한도는 일본인 추사 연구가 후지스카 지카시의 손에 넘어갔다가 진도 출신 서예가이자 고서화 수집가인 소전 손재형이 거액을 주고 되찾아 왔다. 손재형이 아니었다면 세한도는 얼마 뒤 후지스카 연구실 화재로 재가 되어버렸을 테니 진도와의 인연도 적지 않다. 소치와 아들 미산, 손자 남농과 임인의 그림을 둘러보는데 이 해설사의 설명 덕에 학창시절 배웠던 한국화의 '여백의 미'가 제대로 눈에 들어온다. 세한도의 여백이 한겨울의 추위가 되듯, 산의 여백은 안개가 되고 눈이 된다. 폭포의 여백은 그대로 물이기도 하고 물보라이기도 하다. 뗏목이 한쪽으로 쏠려있으면 여백은 바람이 되고, 뗏목이 아래를 향하면 여백은 비나 눈이 되니 그 무궁한 사유와 멋이 새삼 감탄스럽다.

눈보라가 휘몰아치자 윤림산방 뒤 침철산이 한 점의 수묵화가 됐다.





1 주춧돌만 남은 용장성 터
2 출토된 기와장은 몽골군의
화공에 본래 색을 잃었다.
3 궁터 주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 좋다.

빈 궁터를 싸목싸목 걷다

차창으로 달려드는 눈발을 헤치고 용장성으로 향했다. 진도 용장성(사적 제126호)은 고려 시대 대몽 항쟁을 이끌었던 삼별초의 근거지였다.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이었던 삼별초는 몽골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천도(1232년)한 이후 대몽 항쟁의 주축이었다. 1270년 정권을 되찾은 원종이 몽골의 뜻에 따라 개경으로 환도하고 삼별초의 해산을 명령하자, 이에 반발한 무신 배중손은 원종의 6촌인 승화후 온(溫)을 왕으로 추대하고 몽골과 고려 왕정을 상대로 항전을 벌였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내려와 용장성에 터를 잡고 용장사를 궁궐로 삼은 삼별초는 이곳에서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퇴각했고, 결국 1273년 제주에서 전멸했다. 신식 화기로 무장한 몽골군과의 전투

로 용장성은 모두 불타버렸다. 길이가 13km에 달하던 옛 모습은 대부분 사라지고 성의 부분적인 형태와 계단식으로 만든 궁터에 주춧돌만이 남아있다. 극심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용샘에는 도롱뇽과 개구리가 살고 있다. 궁터 주변으로 만들어진 산책로는 싸목싸목('천천히'라는 뜻의 전남 방언) 걷기 좋다. 발굴 당시 출토된 기와장을 산책로 한쪽에 쌓아뒀는데, 원래 검은색이었을 기와장이 불기운에 연탄재처럼 허옇게 바래고 초록빛으로 이끼가 앉았다. 북향으로 자리한 궁터의 맨 위에 오르니 북쪽에서 세찬 바람이 거칠 것 없이 불어닥쳤다. 꽤 많은 눈이 내렸지만, 영상의 기온에다 거센 바람에 휘날리느라 쌓일 새가 없다. 내려가는 길은 후박나무가 근사하다. 잎이 넓은 상록수인 후박나무는 눈보라 속에서도 든

든하다. 진도군 군목이기도 한 후박나무는 남쪽 비닷가 마을에서 방풍림으로 많이 심고, 껍질은 약재로도 쓰인다. 내리막길의 마지막 계단은 동백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다. 남도에서 흔히 보는 동백꽃이지만 눈보라 속에서 마주하니 피어있는 꽃도 떨어진 꽃도 새삼 붉고 처연하다.

일몰 명소 세방낙조, 겨울엔 급치산 전망대

진도의 서쪽 끝 일몰 명소인 세방낙조는 진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에 있다. 메타세쿼이아와 야자수가 가로수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점점이 섬이 떠 있는 바다도 매 순간 풍경을 달리 한다. 바다로 지는 해는 어느 곳이든 아름답겠지만, 세방낙조가 더욱 아름다운 이유는 다도해를 배경으로 철에 따라 해가 몸을 숨기는 곳이 이 섬 사이에서 저 섬 사이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겨울에는 섬 사이 바다가 아닌 원편 마을 뒤로 사라지기 때문에 겨울 낙조를 제대로 보려면 급치산 전망대가 좋다고 이 해설사가 추천했다. 세방낙조에서 약 4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다 유턴에 가까운 우회전을 하면 급치산 전망대가 있다. 이름 그대로 급한(急) 고개(峙)다. 전망대 자체는 그리 운치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진도의 다도해를 즐기기에는 세방낙조 이상일 법하다. 그러나 때맞춰 다시 휘몰아치는 눈보라 덕에 이날의 전망대는 섬의 윤곽만 흐릿하게 보이는 수목화를 선사했다. 뒤돌아 내려오는 길, 바로 보이는 바위산인 동석산이 아쉬움을 달래준다. 높이는 217m에 불과하지만 높이를 압도하는 기세가 만만찮다. 다음날 오전, 이틀째 내린 눈이 포근하게 대지를 덮은 남도를 뒤로하고 다시 북쪽으로 향하는 길. 서울에서는 영하 15도의 동장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



INFORMATION



남도 여행에서 4~5시간 걸리는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관광지 순환 버스 '남도한바퀴'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매일 오전 일찍 광주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전남 각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테마로 묶어 다녀오는 하루 코스다. 해남 대흥사와 완도 수목원 등을 다녀오는 해남·완도 힐링여행, 진돗개 마파크와 토요민속 공연, 윤림산방 등을 돌아보는 진도 향토문화여행, 순천만 국가정원과 여수 오동도



사진 / 금호고속 제공

등이 포함된 순천·여수 낭만여행 등 26개 코스가 지난해 운영됐다. 버스 요금만 9천900원(섬 코스 1만9천900원, 신안 요트코스 2만5천원), 식비나 입장료 등은 개인이 부담한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여행지의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난해 12월 9일 마지막 운행을 마쳤고 올해는 1월 12일 재개한다. 겨울에는 운영하지 않다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올해는 1, 2월에도 토요일 하루 운행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다시 주7일 운행할 예정이다.

남도한바퀴 <http://citytour.jeonnam.go.kr>
문의·예매 ☎ 062-360-8502

고흥



◀ **힐링파크 쑥섬쑥섬**
섬 탐방비(1인당 5천원)와 카페의 찻값은 모두 양심껏 무인 돈통에 넣도록 했다. 돌게 펜션에서 묵을 수 있지만 섬 안에 가게나 식당은 없다. 1월부터 재개될 배편 등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 '쑥섬쑥섬'(<https://blog.naver.com/ssookse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10-8672-9222, 010-2504-1991



◀ **거금도 일주 드라이브**
'작은 제주'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이다. 1960년대 유명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의 고향이기도 하다. 연흥도에 들어가기 전이나 돌아보고 나온 후, 일주도로를 따라 한 바퀴 돌아볼 만하다. 논 한 가운데 새파란 잔디가 자라는 야구장과 바다의 전복 양식장, 양파밭 아래 해수욕장, 생태숲, 목장성터, 고래섬 등 지나치기 아까운 풍경이 이어진다.

▼ **연흥도**
식당이나 상점이 없으므로 묵으려면 녹동항 등에서 미리 장을 봐야 한다. 연흥미술관과 카페는 월요일 휴무, 펜션은 연중무휴다.
☎ 010-7256-8855
마을에서 운영하는 펜션도 있다.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예약하면 마을 부녀회에서 식사를 준비해 준다.
☎ 010-8255-1544



여수

▶ **낭만버스**
여수시 투어버스인 여수 낭만버스는 전국 지자체 투어버스 중에서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오전에 여수엑스포역에서 출발해 저녁까지 오동도, 진남관, 향일암, 수산시장, 이순신 광장, 홍국사 등 시내의 주요 관광지를 도는 2개 코스가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제2코스를 여지만 일대를 추가한 새로운 코스로 바뀌어 운영하고 있다. 가사리 생태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고, 사곡리 일대 갯벌노을마을에서 노을을 감상한다. 물때가 맞으면 갯벌체험을 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를 돌아오는 야경코스,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한 유적지들을 도는 토요 유적코스도 있다.

예약 여수시OK통합예약시스템 <http://ok.yeosu.go.kr>
문의 동서관광 ☎ 061-692-0900, 0903



진도

▶ **진도읍 전통 오일장**
2일과 7일에는 진도읍 조그리 일대에서 전통 오일장이 열린다. 장어, 서대, 간재미, 톳, 칠게 등 수산물부터 울금, 대파, 감점쌀 등 농산물은 물론 전통시장에서 빠지면 서운한 뽕튀기와 주인을 기다리는 새끼 진돗개도 볼 수 있다. 상설시장인 조금시장과 인근 진도 수산시장, 진도아리랑 수산시장에서는 언제나 신선한 회와 해산물 요리를 맛보고 살 수 있다.



▶ **남도진성(사적 127호)**
고려 원종 때 대몽 항쟁을 벌이던 삼별초군이 용장성에서 여몽 연합군에 밀려 내려와 마지막까지 격전을 벌이던 석성이다. 성 안 마을을 철거하면서 돌담들은 다 사라지고 현재는 최근 복원한 관아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 성곽에 올라 걸으며 둘러볼 만하다.



사진 / 진도군 제공

▶ **국립 진도자연휴양림**
최서남단 진도에서도 남쪽 끝자락 해안에서 2017년 여름 문을 열었다. 객실이 모두 바다를 향하고 있는데, 특히 5인실인 숲속의집(B)은 방 한쪽 벽을 차지하는 커다란 창이 동쪽을 향해 있어 방 안에서 그대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